

내 마음 나도 몰라

(병적 명정)

C군은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원래 그는 좋은 성격을 가졌고 다른 사람의 어려운 일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도와주는 사람이었다. 적어도 그가 술을 입에 대지 않던 고등학교 시절까지는 그랬다.

그러나 지금 그는 ‘낙담하여’ 학교 강의도 잘 들으려 하지 않고, 친했던 친구들도 만나지 않고 그냥 혼자서만 지내고 있다. 그 이유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면, 남들은 취기가 돌기도 전에 혼자 취해서 술상을 엮고, 옆 사람에게 이유도 없이 주먹질을 해대는 병적인 발작이 있어서 모두들 그를 두려워하고 따돌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기억나지도 않으며, 그럴 생각조차도 가진 적이 없다며 몹시 괴로워하였다.

얼마 전 학교 부근 소주 집에서 동아리 모임이 있었다. 그런데 모임이 시작된 지 불과 몇 분 지나지 않아서 C군이 자꾸만 주제와 어긋난 이야기를 하자 옆자리의 친구가 그에게 눈치를 주며 저지하였다. 그때 갑자기 C군이 벌떡 일어나더니 그 친구의 얼굴에 정통으로 주먹을 날려서 코뼈를 부러뜨려 버렸다.

당연히 그 자리는 난장판이 되어 버렸고 큰 소동이 벌어졌다. 더욱이 놀랐던 것은 옆자리의 친구를 단숨에 때려눕힌 C군이 오히려 비분강개(悲憤慷慨)하여 “누구든 덤벼라, ××들아”라며 술병을 깨 들고 설쳐댄 것이었다. 친구들은 모두 혼비백산하여 흩어지고 말았다. 그때까지 C군이 마신 술은 소주 한 잔이었다.

더 놀라운 일은 이튿날이었다. 문제의 C군은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학교에 나타났고 흥분한 동료들이 간밤의 에피소드를 다그치자 그는 고개를 들지 못 하고 크게 낙담하여 나중에는 무릎을 꿇고 잘못 했노라고, 그러나 나는 정말 모르는 일이라고 용서를 빌었다.

하지만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수차례 있었고, 그의 주먹에 얻어맞은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동료들은 이제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다. 그는 누군가를 패 주고 싶으면 술을 핑계 삼아 패 버리고, 이튿날은 싹싹 빌어 버리는 치사한 인간으로 취급당했다.

만성 주정 의존증으로 술을 마시기 시작한 지 이십 년 정도 되면 술에 대한 내성이 급격

히 떨어져 소주 한 잔만으로 취하고 기억이 끊어지는 경우가 흔히 있다. 이것은 알코올 중독증의 말기 증세에 해당된다. 그러나 C군의 경우처럼 남들은 취기가 오르기도 전에 적은 양의 술을 마시고 기억이 끊어지며 난폭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는 병적 명정(病的 酩酊)이라고 하는 술과 관련된 또 다른 하나의 질병이며 상당히 심각한 상태이다.

때때로 이런 증세를 보이는 환자의 뇌파에서 측두엽(側頭葉) 간질을 의심케 하는 소견이 발견되기 때문에 간질 발작의 일종이 아닌가 추정케 한다. 이것은 보통 사람들이 갑작스레 과음한다던가, 또는 술을 장기간 마셔 왔다던가 해서 발생하는 문제와는 관련 없다. 이 상태는 중요한 별개의 질병이다. 이런 환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고를 치고 유치장 안에서 정신이 들어, 아무리 기억을 해내려 해도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생을 통해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한다.

리차드 기어와 킴 베이싱어가 출연한 영화 '최종 분석'에서 병적 명정(Pathological intoxication)환자인 '헤더 에반스'(킴 베신저 분)는 병적인 상태에서 남편을 살해하고 체포된다. 살인 혐의로 기소된 헤더를 정신과 의사(리차드 기어 분)가 '환자임을 입증하여' 무죄 판결을 받게 유도하지만, 석방될 무렵 그것이 병을 가장한 계략적 살인이었다는 것을 눈치 채게 된다. 흔하지 않지만 사회적인 문젯거리가 될 수 있는 소재로 긴장감 있게 구성을 했다는 점에서 매우 관심을 끄는 영화이다. 또한 임상에서 몇 년에 한 번 정도 경험할 수 있는 희귀하면서 독특한 유형의 환자가 모델이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 있게 보았던 영화였다.